

여보!! 이제 100미터 달리기를 멈췄어?

하트 리듬 희망 특별상

양 윤 선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화나 있던 심장과 이제는 제법 많이 친해져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 대한민국 40대의 젊은 아줌마입니다.

저는 심장만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이 길어서 조금이나마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내려고 “심쿵이”라는 애칭을 붙여 주었어요.

저는 20년 전 반짝이고 빛났던 대학생활을 마치고 서울시 중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했고 야근과 잡무로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콩닥콩닥 행복하기만 했어요.

드디어 첫 소풍을 가는 날이 다가왔는데 퇴근하던 저는 버스를 타면서 급작스러운 가슴 두근거림을 느꼈어요.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버스에 올랐는데 버스를 타니 터널에 들어온 것처럼 시야가 좁아지고 모든 사물이 흐리게 보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증상과 느낌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저는 간신히 잡고 있었던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말았어요.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연출되었어요.

한 사람은 전화를 들고 황급히 통화를 했고, 남자 두 분은 저를 양쪽에서 부축했으며 버스는 멈췄고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변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나니 다시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20대 초반이었고 다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은 심쿵이가 저에게 보내는 위험한 경고였던 것이었어요!!

다음날 소풍을 갔고 저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채 버스 안에서 화가 난 심쿵이를 움켜쥐고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다음날 바로 병원을 가서 이름조차 생소했던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진단을 받고 젊은 나이임을 과신해 약을 먹거나 그 외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생활했는데 순간순간 예고 없이 찾아오는 두근거림과 어지럼증, 숨이 조여오는 증상은 저의 삶을 무참히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과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심이 커져만 가는 나날들 이었어요.

조금만 운동을 과격하게 한다든지 혹 신경 쓸 일이 조금만 생겨도 심쿵이는 마구 화가 나서 저를 침대에 눕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직장생활을 포기하였고..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노인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나는 이제 평생 약을 먹거나 가슴에 흉터를 남기는 수술을 해야만 하나? 정상적인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이 가능할까?

집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

많은 생각으로 좌절감을 느끼며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심쿵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지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보다 더 미웠습니다.

어느 날, 신랑이 저에게 심장관련 의학 서적들과 관련 기사를 쪽 나열하며 수년간 놀랍게 발전된 의학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신랑은 의사도 아니고 관련된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심리적으로 힘들어 할 때 항상 심쿵이도 같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쿵이를 방치하면 더 화가 날 것이라고 했어요.

신랑과 함께 심방세동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 알게 되었고,

더욱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도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5살 밖에 되지 않은 제 사랑스러운 딸이 고사리 손을 제 가슴에 대고

“엄마! 심쿵이가 또 화가 나서 세계 뛰고 막 흔들려. 내가 혼내줄게. 엄마 괜찮아?”

라고 울며 위로를 해주는데 그 순간 저는 굳게 결심하고 다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어린 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는 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심전도, 피검사, MRI, CT, 24시간 홀터를 여러 차례 달고 검사한 결과 “심방세동” 이 확실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이에 대한 억울함 따위는 잊어버린 채 어떻게든 치료받고 화난 심쿵이를 달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약을 복용하고도 증상이 나타나서 다음 단계인 시술을 결정한 후 혼자 병원에 입원하여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신랑은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고 딸은 친정 부모님께 맡긴 채 혼자 입원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지혈만 6시간 이상을 하였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신체적 고통보다 아무 성과 없이 수술실에서 나오게 되어 허무감과 실망감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두 번째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했어요.

굳게 마음을 먹고 수면 마취 후 저는 또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5시간의 시술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심방세동” 이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예상하기 어렵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경과를 보자고 하시며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셨고, 시술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술 후 저는 원하던 강사 일을 시작하였고 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언제 증상이 나타날까 걱정이 앞섰던 심리적인 부분이 해결되니 정신적으로도 매우 편안한 상태입니다.

수백명의 사람들 앞에서 큰 강연을 할 때에도 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증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어요.

이제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병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찾아보고 걱정하는 일도 없습니다.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지나가는 공기가 상쾌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 짓게 되고 모든 일에 두려움 보다는 자신감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이제 심쿵이가 저를 아프고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를 기울여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하지 않아서 서운해서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강조하는 “조기진단과 빠른 치료”의 중요성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이는 제게 말합니다. “엄마!! 심쿵이가 이제 엄마 괴롭히지 않네? 자고 있나봐“

신랑이 제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100미터 달리기 멈췄어?“

제가 늘 증상이 왔을 때 신랑이 가슴에 손을 대면 100미터 달리기를 한 것처럼 심장이 많이 뛰고 떨어진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몸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의료진의 힘을 믿는 것, 속제는 미룰지언정 내 몸에 대한 것은 절대로 방치하지 말아야 함을 가슴깊이 새깁니다.

심쿵아!! 고맙다.. 너를 더 아끼고 사랑할께!!

저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글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은 주변의 여러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심장이 이상신호를 보였을 때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서 정밀진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조기진단과 빠른 치료”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글을 쓰며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환자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의료진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